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JP 모건: No signs of US exceptionalism fading
- CNN Business: 연방 하원, 미국 내 틱톡 금지 법안 통과

[미국 금융]

- WSJ: 미 국채 수익률 5%로 상승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 Bloomberg: 이번주 실적 발표 앞두고 미 주식 반등세
- FinaceYahoo: 중동 긴장 완화로 금값 하락

[에너지]

- Bloomberg: 유가 하락 ... 트레이더들 '중동 리스크'에 주목
- Bloomberg: 이번주 글로벌 광물의 5가지 차트

[세계 경제]

- Bloomberg: 한국의 2분기 수출 상승 ... 수출 동력 여전히 강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Kroger와 Albertsons, 규제 기관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매장 매각
- WSJ: Meta의 AI 솔루션이 광고 효율성 높인다
- Bloomberg: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꿈, 오히려 회사 혼란 초래
- WSJ: Levi Strauss, 새로운 고객층 대상 비즈니스 확장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JP 모건: No signs of US exceptionalism fading

미국의 '예외주의' 사라지지 않는다

- JP 모건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17일까지 투자자 370명에 실시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미국의 예외주의는 61%로 나타났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 달러 자산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달러의 가치가 올해부터 현재까지 5% 상승했어도 투자자 34%는 달러의 랠리가 현재의 폭(+/-2%) 범위내에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에 39%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 투자자의 16%만이 S&P 500지수가 5천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응답자들의 70%는 올해 말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5%로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현재의 상승을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다.

Click [here](#) for the full document and disclaimers

CNN Business: House passes legislation that could ban TikTok in the US amid high-stakes vote on foreign aid

연방 하원, 미국 내 틱톡 금지 법안 통과

- 미 하원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 패키지의 하나로 틱톡을 겨냥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틱톡의 금지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표결수는 3백60대 58로 압도적인 표차. 현재 미국 내에 이용자는 1억7천만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 회사는 중국의 바이트댄스 회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Path for 10-Year U.S. Treasury Yield to 5% Is Possible but Tricky 미 국채 수익률 5%로 상승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 금리 하락의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5%로 상승할지 고민하고 있다.
- 최근 3월 강한 인플레이 보고서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Tradeweb에 따르면 지난주에 수익률이 4.696%로 지난 5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5%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늦어져야 하거나 올해 내내 금리 인하가 없거나 강한 인플레이와 강한 경제로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가시화 된다고 해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다시 테스트해도 놀랄 일리 아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Futures Rise With Big Tech Earnings in Focus: 이번주 실적 발표 앞두고 미 주식 반등세

- 미국 증시 자본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S&P 500 기업 중에 180개가 이번주에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중에 이번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에 주목된다. 이들은 작년에 비해 38% 상승했었다.
- 이같은 실적 발표의 관심은 연준의 금리 인하 보류 소식으로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주식 랠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나왔다.
- 최근 블룸버그 조사(Markets Live Pulse survey)에 따르면 응답자 4백9명 중 거의 3분의 2는 기업의 실적이 주식 벤치마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FinaceYahoo: Gold Retreats as Middle East Tensions Ease Following Strikes**중동 긴장 완화로 금값 하락**

-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을 밝혀줄 미국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금값이 하락했다.
- 지난 5주 동안 랠리 이후에 2% 이상 하락해 온스당 2천3백45불을 기록했다.
- 중동사태 관련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여파와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에너지]**Bloomberg: Oil Falls After Weekly Losses as Traders Focus on Mideast Risk****유가 하락 ... 트레이더들 '중동 리스크'에 주목**

- 중동 긴장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 지난주에 2월 초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까지 하락했다. 금값도 함께 하락하여, 안전피난처 수요가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금요일 가격 급등 이후, 시장에는 불안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는 이란이 일주일 전 이스라엘의 대응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원유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석유 산유국들의 공급 감소로 올해 12%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ive Key Charts to Watch in Global Commodities This Week
이번주 글로벌 광물의 5가지 차트

- 금: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월요일 하락세로 돌아섰다. 앞으로의 전망은 강세로 볼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 자금이 금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로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다.

- **원유:** 11월 이후 처음으로 원유 옵션 트레이더들이 가격 상승에 대비해 헤지 비용에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이른바 스큐(Skew)로 알려진 약한 풋옵션보다 강한 콜옵션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지정학적 기장으로 원유에 대한 강세 심리가 큰 상황이다.
- **밀:** 가뭄이 완화되면서 밀 작황이 4년 만에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분 업체들이 밀가루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미 농부들이 이미 수출시장에서 러시아의 값싼 공급으로 인해 밀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 **커피:** 커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와 프리미엄 아라비카 품목 모두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로부스타 품종은 최대 수출국이 베트남의 폭염 때문이고 스타벅스가 선호하는 아라비카는 로부스타를 대체할 원유로 주목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 **전기차:**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22% 늘어난 1천6백70만대로 예상되는데 이 수준은 작년의 30% 증가율 보다 떨어진다. 유럽의 규제 개편과 중국 시장의 포화상태,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신뢰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세계 경제]

Bloomberg: South Korea's Early Exports Rise as Momentum Remains Strong 한국의 2분기 수출 상승 ... 수출 동력 여전히 강해

- 4월 초기 무역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의 2분기 수출이 활기차게 시작했다.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 월요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첫 20일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수입은 6.1%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AI 및 기타 기술 중심의 성장으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핵심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1분기 수익이 급증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Kroger, Albertsons to Sell More Stores, Looking to Appease Regulators

Kroger와 Albertsons, 규제 기관 달래기 위해 더 많은 매장 매각

- 크로거와 앨버트슨이 160개 이상의 매장을 추가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쟁 규제 당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장기간 보류된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
- 월요일 두 기업은 C&S Wholesale Grocers와의 수정된 계약에 따라, 579개의 매장을 매각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이전 계약보다 166개 늘어난 것. 크로거는 동시에 워싱턴 소재의 Haggen banner를 C&S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 9월, 앨버트슨과 크로거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가 될 이번 합병에 대한 규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매장 및 기타 자산을 C&S에 매각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WSJ 기사

WSJ: Meta's AI Push Needs to Efficiently Deliver a Lot More Ad Growth

Meta의 AI 솔루션이 광고 효율성 높인다

- 지난 수요일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Meta Platforms이 거대 테크 기업 중 처음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 결과, 금요일 테크 부문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매각에도 불구하고 Meta의 주가는 현재까지 36% 상승했다.
- Meta의 활약에는 AI의 도움이 컸다. 지난 목요일 기업은 대형 언어 모델인 Llama 3의 최신 버전을 출시했다.
- Google은 생성형 AI 챗봇이 자사 핵심 사업인 검색 기능을 대체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지만, Meta의 페이스북은 걱정 없이 광고 사업에 AI를 접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 Jefferies의 Brent Thill는 “Meta는 생성형 AI를 광고 도구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Elon Musk's Robotaxi Dreams Plunge Tesla Into Chaos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꿈, 오히려 회사 혼란 초래

- 내일 화요일, 테슬라가 영업이익의 40%가 급감과 동시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일론 머스크는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로보택시’라 불리는 차세대 자율 주행 자동차에 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테슬라 내부 직원들은 CEO가 추진하는 변화에 불안해한다는 사실이, 익명의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 테슬라 내부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최소 8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아직 갖추지 못했으며 테슬라를 위한 규제 승인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WSJ: Levi Strauss Is Stretching Beyond Wholesale in Search for New Customers

Levi Strauss, 새로운 고객층 대상 비즈니스 확장

- 최근 리바이스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독립형 매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청바지 제조업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업 노력의 일환이다.
- 기업 매출의 절반이 매장에서 직접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위 계획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리바이스는 현재 전략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170년이라는 전통을 보유한 브랜드로서,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리바이스는 비용 지불 및 고객 소통 방법에서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차세대 패션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제품 및 색상의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WSJ 기사

운용자산 은행의 2배...美 금융시장 지배자로 떠오른 자산운용사

몇몇 대형펀드 자산은 선진국 경제 규모와 맞먹어

미국 금융시장의 지배자는 더 이상 대형은행들이 아니라 대형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은행들을 제치고 미국 경제 자금줄을 장악하고 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당시 미국 은행들과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엇비슷했다. 각 분야 모두 120억 달러 수준이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24. 4. 22. 오후 1:23

Email Hub | Constant Contact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